

해외지역 연구를 위한 전자문화지도 접목 방안

강지훈* · 문상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Ji-hoon Kang* · Sang-ho Moon**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Busan Univ. of Foreign Studies

E-mail : mooswon@naver.com

요 약

문화지도는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양상들을 점, 선, 기호 등으로 표현하여 지도에 나타낸 것이며, 전자문화지도는 이 지도를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것이다. 이러한 문화지도를 활용하면 해외지역 연구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연구 결과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되고 새로운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지역 문화, 특히 지중해지역을 위한 전자문화 지도의 접목에 대하여 연구한다. 세부적으로 문화양식, 문화유산, 문화생활과 같은 다양한 문화 양상을 식별하기 위한 문화 분류, 문화지도 구성을 제시한다.

키워드

문화지도, 전자문화지도, 지중해지역 연구, 디지털 융합

1. 서 론

과거나 현재의 학문은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학, 경제학 등 각 학문의 분야에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만, 해당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서점 또는 도서관에서 관련 도서나 논문 등의 자료를 검색하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찾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은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 교류를 가능케 함으로 이문화 간 교류와 소통을 용이하게 해주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기존에는 키워드를 통한 단어검색이 정보접근의 주요한 방법이였다면 최근에는 사용자의 인식구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보검색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1,4]. 디지털 환경에서 지도는 좀 더 효과적으로 문화를 관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문학, 지역학, 문화가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와 접목된 형태인 전자문화지도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문화지도와 전자문화지도의 개념 및 활용사례를 알아보고 주제선정을 위해 문화 분류체계에 관한 방법을 알아본다. 세부적으로 해외지역의 인문학, 지역학에 초점을 맞추어 지중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자문화지도 접목과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다.

본 논문에서 포함되는 지중해 지역 국가 및 연구주제는 표 1과 같다. 표 1은 지중해지역을 연구하는 학술기관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에서 선별된 지중해 지역 국가이다. 지중해국가를 지리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확히 구분 짓기는 어려우나, 해당 지역원에서는 지중해지역 연구를 위해 표 1과 같이 선정했다. 주제 또한 지중해지역원의 아젠다(agenda)에 맞게 선정된 대주제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활용해 문화체계를 분류한다.

[표 1] 지중해지역 국가 및 연구주제

국가		연구 주제
그리스	알제리	국가, 민족 종교, 언어 역사, 철학 관습, 사회 법률, 정치 경제, 환경 예술, 자원
이탈리아	튀니지	
프랑스	리비아	
스페인	이집트	
모로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터키		

지중해지역 연구 결과를 문화지도로 표현하는 목적은 크게 지중해지역 연구 자료의 전시와 지중해학 개념의 확산, 이를 활용하여 또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는 해외지역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서의 문화지도 활용이다. 즉, 지중해지역 연구에 대한 성과물이나 자료들을 지도를 활용해 시간, 공간 데이터와 함께 시각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또한 축적된 성과물과 자료들을 통해 새로운 연구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지중해지역 전자문화지도는 해당지역을 주제,

공간, 시간이라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료를 통해 통합적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지중해지역에 대한 연구의 방법으로 또한 해당지역과 교류의 통로로서의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관련 연구

문화지도의 개념은 활용분야에 따라 네 가지 개념으로 확대된다. “지리지, 연구와 표현방법론, 전시 기반, 지도 제작도구” 등이 그것이다[2,3]. 문화지도란 지도라는 매체에 문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지역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문화(주제), 지역(공간), 시대(시간) 라는 세 가지 값을 동시에 활용하여 해당지역의 시대별 문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전자문화지도는 이러한 문화지도를 전자적 형태 즉, 컴퓨터를 활용해 구현한 시스템으로 주제, 공간, 시간이라는 값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켰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시대별 지역별 주제별 정보들을 사용자가 스스로 조합해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그림 1]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메인화면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그림 1은 이 시스템에서 웹 형태로 개발한 전자문화지도의 메인화면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이 전자문화지도는 조선시대의 문화정보라는 주제, 한반도라는 공간, 조선시대라는 시간값을 대상으로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이를 웹을 활용해 시각화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사용성을 높였다.

TimeMap Korea는 한국 역사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서비스하는 전자문화 지도로서, 그림 2는 이 시스템의 수행 결과를 일부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이 전자문화 지도는 서기 200년부터 1000년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지도와 간략한 설명을 타임라인(Time Line)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그림 2] TimeMap Korea

III. 문화지도 구성 방안

3.1 문화 분류 체계 분석

문화란 단순히 문학이나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과 생존방식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이자 그 총체이다 [2]. 이렇듯 문화라는 개념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도에서 나타낼 문화를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 분류 방법에는 주제별 분류방식, 계층형 분류방식, 양태분류 방식 등이 있다. 표 2는 문화 분류 방식별 활용 현황을 보여준다.

[표 2] 문화 분류 방식의 특징 및 활용현황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조선시대 전자지도시스템
분류방식	주제+계층형	주제+양태
특징	분류의 엄정성	주제와 양태 항목의 독립성
문제점	사용성,편의성 ↓	사용성,편의성 ↓

아시아 문화지도 제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전에 이루어진 문화지도 제작 시 문화 분류 방법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2]. 두 기관에서 사용한 문화 분류 방식은 모두 분류의 엄정성과 계층형 구조로 인해 사용자의 사용성과 편의성이 저하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전에 이루어진 문화지도 관련 연구에서 문화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중해지역의 문화를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분류 체계는 데이터수집과 더불어 전자문화지도 설계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할 과제 중 하나이지만, 본 논문에서 직접 문화를 분류하기 보다는 해당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중해지역원에서 선정된 연구 주제들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중해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중해지역을 중심으로 전자문화지도의 접목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는 앞서 이루어진 연구와 달리 해당연구기관에 특화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좀 더 명확하고 전문적

인 주제 분류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해외지역 연구를 위한 문화분류 체계

문화 분류에 앞서 본 논문은 이전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지중해지역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와 그 기관에서 수행되는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특화된 주제를 선정한다.

지중해지역원은 지역학과 인문학을 기반으로 ‘지중해지역의 문명 간 교류 유형’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다. 해당연구기관에서 가장 보편타당한 주제는 표 1에 나와 있다. 정해진 주제는 이후 세부적인 주제와 테마로 선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문화지도를 활용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문화분류 체계는 표 3과 같다. 표 3은 아시아 문화지도 문화체계 분류에서 사용된 문화분류 체계안 즉, 주제분류와 양태분류를 결합한 형태를 활용하여 지중해지역연구에 맞게 접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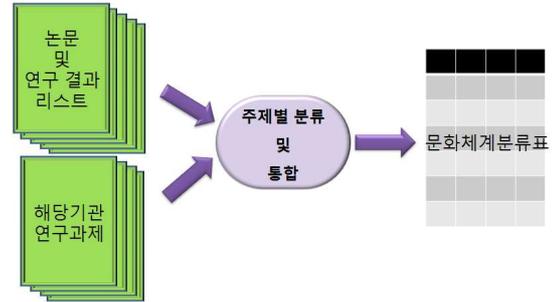
[표 3] 지중해지역 연구를 위한 문화 체계 분류

주 제	양 태	관념	인물	사건	사물
	교류				
교류	국가/민족	국가 관념, 사상	왕, 권력가, 중요 인물	국가 중요 사건	국가 주요 사물
	종교/전쟁	종교 사상	성인, 신화 인물, 장군	종교 전쟁, 영토 전쟁	종교 서적, 유적, 유물
	학술/교육	학술 교육 사상	철학자, 교육자, 학술가	언어 및 교육 관련 사건	학술 서적
	문학/언어	언어 사상	문학자, 작가	문화, 학술 관련 사건	문학 서적, 주요 작품
	생활/관습/법률	신화, 신앙, 의식	법률가,	법, 생활 주요 사건	건물, 음식
	정치/사회/경제	정치, 경제 사상	정치인, 경제인, 행정가	근대화, 산업화 등의 사건	기술품, 관련 서적
	예술	신화, 사상	미술가, 건축가, 예술가	미술, 건축, 주요 사건	예술 작품

표3 에서 보면 주제 분류에서 대주제로 교류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이는 지중해지역원에서 진행되는 연구 주제 중 가장 범위가 큰 주제가 지중해지역 국가 및 국가 간 교류 유형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시아 문화지도 문화체계와 달리 연구기관에서 행해지는 연구과제의 기본이 되는 주제를 대주제로 선정해 두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 특화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 도출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의 선정과정은 먼저 지중해지역원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물들을 목록화 한다. 이후 이 결과물을 주제별로 나누는 뒤 연관성이 있는 주제들은 그룹화 및 취합하여 주제를 분류한다. 그림 3은 주제선정 방법이다.



[그림 3] 주제선정 방법

VI.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중해지역 문화연구를 위한 전자문화지도의 접목 방안은 크게는 인문, 지역학과 IT의 융합학으로서, 세부적으로는 지중해지역을 연구하는 연구방법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제안했다. 향후 실제 적용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설계 및 구현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단지 관련정보의 검색뿐만이 아닌 문화의 연관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이터마인딩을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인문학 뿐 아니라 기타 학문에 적용가능한지의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의 등장 역시 기관에 특화된 즉, 학문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의 전자문화지도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활용범위가 크게는 대부분의 학문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학문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김종혁 “디지털시대 인문학의 새 방법론으로서의 전자문화지도”,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제12집, pp.263~290, 2008.6
- [2] 김상헌,손정훈 “아시아문화지도 문화분류체계와 기반기술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글로벌문화콘텐츠, pp.173~203, 2008.12
- [3] 김남희,장은지,임지혜 “아시아문화지도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글로벌문화콘텐츠, pp.123~146, 2008.12
- [4] 김상철,윤유석,정선애,윤나리,권윤경 “문화지도”,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글로벌문화콘텐츠, pp.147~172, 2008.12